

보 도 자 료	 사 단 법 인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	
배포즉시 ('20.8.12)	협회 사무국	T. 02) 778-3270~2 F. 02) 778-3280
제 목 : 개성공단기업, 완전봉쇄와 수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개성시 북측 근로자 지원 추진.		

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(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)는 수재로 피해가 큰 북측 이재민들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전봉쇄된 개성시 북측근로자들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먹거리와 방역용품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.

“개성시와 인접한 황해북도 등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, 특히 개성시는 코로나19 관련 완전봉쇄로 개성공단에서 10여년이 넘게 함께 일해왔던 북측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.” 고 말하고,

“비록 공단이 5년 가까이 닫혀 있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, 가족같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하고, 조속히 이 재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로 우리가 다시 상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” 고 밝혔다.

“특히 북측 정부는 작지만 진심어린 우리의 마음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라며,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이해하나 민간접촉이 봉쇄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뜻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해 주기를 희망한다.” 고 요청했다. [끝]